

조어형성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

신 수 송

이 논문에서는 독일어의 조어형성과정에서 파생형태소(Ableitungssuffix)를 합수로 하고 이 파생형태소와 결합하는 어휘범주들을 논항으로 하는 새로운 의미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소위 Bracketing Paradox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둔다. 먼저 연구의 범위는 동사로부터 -er, -ung에 의해 유도되는 활성적인 명사화 조어에 국한하고 조어를 포함한 합성명사(Nominalkomposita)와 합성명사구를 구조적으로 비교하여 Bracketing Paradox의 문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조어구조가 어휘부에 내장된 개별어휘들의 개념들을 결합하여 복합적인 새로운 개념구조를 형성하는 까닭에 조어 현상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특정한 발화상황에 근거한 통사현상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즉, 조어구조에는 특정한 발화상황에 관련된 기능범주의 표현, 예를 들어 특정한 시간표현, 양상표현, 지시표현이나 문맥에 관련된 대응어적 표현이 나타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조어현상을 통사규칙에 의해 기술되는 통사현상의 일종으로 보려는 변형론자(transformationalist)의 주장에 반대한다. 이 논문에서는 예를 들어 파생조어 유도는 파생형태소가 자신이 논항으로 취하는 어휘범주의 의미역구조를 변경시키는, 즉 의미역을 삭제하거나 흡수하거나 첨가하는 과정으로 가정한다. 나아가 이렇게 유도된 파생조어가 통사구조에 사상될 때 의미역들의 통사적인 환경에 대응되는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표층 통사구조에서 파악될 수 없는 조어의 핵심어와 보족어관계를 의미역을 중심으로 규명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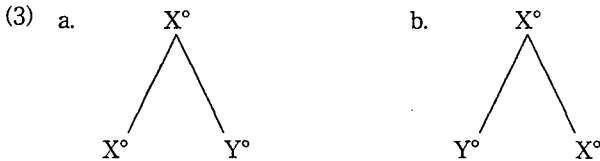
1. 조어의 형태소 구조와 의미구조

70년대와 80년대의 조어론 연구는 통사론과 어휘론을 엄격히 구분하는 어휘론자들(Chomsky 1970, Lieber 1980, Williams 1981, Selkirk 1982, Dowty 1979, Shin 1983, 1984, DiSicuillo and Williams 1987 등)에 의해 주축을 이루면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Lieber(1992)는 통사론의 범위에서 생성되는 구구조가 조어유도에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제시함으로써 어휘규칙과 통사규칙의 엄격한 구분을 포기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다음 예들은 Lieber(1992)가 제시한 영어와 독일어의 예들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 이 논문은 1997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농협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완성된 것임.

- (1) a. a pipe and slipper husband
 b. a floor of a birdcage taste
 c. over the fence gossip
 d. in a row nests
 e. ate to much headache
 ...
- (2) a. die Wer war das Frage
 b. die Rund-um-die-Uhr-Rennen
 c. die Muskel-für-Muskel-Methode
 d. Hochwasser Alarm
 ...

Lieber는 GB-이론에 의한 허가조건 (Licensing Condition)에 따라 첫째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어휘범주 상호간의 결합으로 유도되는 합성어 구조를 (3a) 혹은 (3b)로 제시한다.



영어의 경우 합성어의 어순이 핵심어가 보속어 (Complement)에 비해 앞서고, 지정어 (3a)와 수식어에 비해 핵심어가 이들을 뒤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휘 범주를 변경시키는 접두사, 혹은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유도나 단순 어휘범주 결합에 의한 합성어 유도는 (3b)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영어에 해당하는 매개변인 (parameter)은 독일어에도 부분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독일어의 예들을 몇 가지 들어보자.

(4) a.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i) 동사로부터의 명사파생어

-er:]V _____]N	Raucher, Schläfer,
-ung:]V _____]N	Verfolgung, Beschreibung
-ling:]V _____]N	Lehrling, Prüfling
-tum]V _____]N	Irrtum

(ii) 형용사로부터의 명사파생어

-heit/keit]A _____]N	Klugheit, Tapferkeit
-schaft]A _____]N	Gemeinschaft, Eigenschaft

(iii) 명사로부터의 형용사 파생어

- bar]_N____]A fruchtbar, sichtbar
- lich]_N____]A monatlich, menschlich

(iv) 동사로부터의 형용사 파생어

- bar]_V____]A trinkbar, nutzbar
- lich]_V____]A bedauerlich, begreiflich

(4) b.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i) 명사로부터의 동사파생어

- be-:]_N ____]V beanspruchen, bebildern,
- er-:]_N ____]V ermorden, erlisten,
- ver-:]_N ____]V vergolden, verkohlen,
- ent-:]_N ____]V entkleiden, entlauben
- zer-:]_N ____]V zersplittern, zertrümmern,

(ii) 형용사로부터의 동사파생어

- be-:]_A____]V befreien, befeuchten,
- er-:]_N ____]V ermorden, erlisten,
- ver-:]_N ____]V verfaulen, vereinsamen,

(iii) 명사로부터의 형용사 파생어

- bar]_N____]A fruchtbar, sichtbar
- lich]_N____]A monatlich, menschlich

(이상에서 범주변경을 유발하지 않는 접미사나 접두사는 제시하지 않았다.)

(4) c. 합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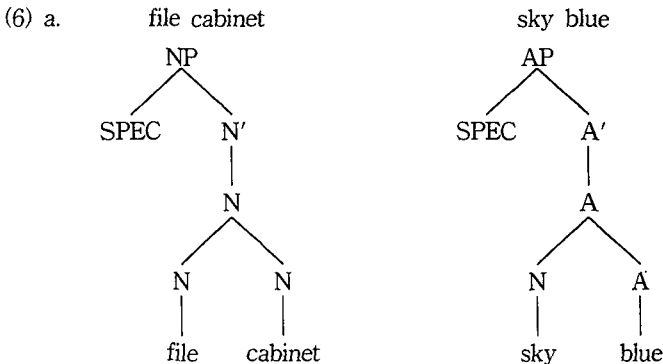
- [A-N]_N : Großstadt, Vollmond, Rotwein
- [N-A]_A : lebensnotwendig, leistungsverschieden,
- [N-N]_N : Bundesstraße, Türschlüssel
- [V-A]_A : denkfähig, trinkfest,
- [V-N]_N : Heilprozeß, Denkaufgabe,

파생어의 경우 접미사는 어근의 어휘범주를 변경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형태소적 속성을 - 예를 들어 명사조어의 경우 성, 수, 격 - 조어의 형태소적 속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어구조상에서 핵심어(head)로 간주한다. 즉 접미사에 의한 파생조어는 (3b)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다음은 파생접두사에 의한 조어유도를 보자. 영어의 경우 접두사 counter-, un-, re-, pre-, mis-, ante-, co-, ex- 등의 대부분이 어근의 어휘범주를 변경하는 경우가 없고 어근의 어휘범주가 조어전체의 범주가 되기 때문에 (3b)와 같은 구조를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독일어의 경우 파생어의 접두사가 어근의 어휘범주를 변경하고 의

미상으로도 어근의 의미에 변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접두사를 바로 핵심어로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접두사에 의한 파생조어의 구조는 (3b)가 아니라 (3a)로 가정해야 한다. 영어와 독일어에서의 이와 같은 차이는 특정한 매개변수의 설정으로 구조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Lieber는 (1-2)의 예들을 가지고 조어가 어휘부에서 어휘규칙에 의해 유도될 뿐만 아니라 통사규칙에 의한, 즉 구구조규칙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녀는 이러한 경우를 위해 다음의 조어구조를 제시한다.



즉, (1b-d)의 예들은 이상의 구합성명사(Phrasal Compounds)에 따라 a floor of a birdcage taste는 $[N[_{NP} \text{ floor of a birdcage}][\text{taste}]]$ 로, over the fence gossip은 $[N[_{PP} \text{ over the fence}][\text{gossip}]]$ 으로, 그리고 ate to much headache는 $[N[_{VP} \text{ ate to much}][\text{headache}]]$ 로 구조기술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금까지의 어휘부 내에서의 조어의 생성을 거부하는 반면 X'-통사론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문법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Lieber는 80년대에 있었던 일련의 형태론 연구(Botha 1980, Savini 1983, Toman 1983, Fabb 1984, Hoeksema 1985, 1988, Sproat 1985, Lieber 1980, 1988, Kiparsky 1982)를 열거하면서 실제로 (1a-e)가 구합성명사임을 여러 가지의 합성명사가 나타내는 현상을 근거로 하여 주장한다. 그녀가 제시한 예들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논의하여 보자. 합성어의 경우, 첫 번째 구성소는 명사구에서나 형용사구에서 명사, 혹은 형용사 핵심어 앞에 나타날 수 없다. 즉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합성어구조에서만 올 수 있다.



둘째 합성명사는 구구조와는 달리 그 구성소들이 서로 인접해야만 한다. 이러한 제약은 (1a-e)예들이 합성어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즉 합성어 black-board에서 형용사 heavy가 중간에 들어가 *a black heavy board가 유도될 수 없는 것처럼, floor of a birdcage taste에서 salty가 삽입된 *a floor of a birdcage salty taste는 비문법적이다. Lieber는 이러한 합성어의 첫 번째 구성소들인 (1a-e)의 최대투영 범주들은 명사구에서 핵심어 앞에 오는 수식어 (Modifier)로서의 최대투영 범주들과는 결코 같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Lieber의 예들은 첫째로, 과도한 비문법적인 언어표현들을 생성 (over generation)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5a-b)구조에 대응하는 (1a-e) 및 (2a-d)의 비문법적인 사례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과연 Lieber의 조어합성어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지가 의심스럽다. (1a-e)에 대한 반례를 보자.

- (1) a. a [_{NP} pipe and slipper] husband
 * a [_{NP} work and rest] husband
 * a [_{NP} trip and vacation] husband

- b. a [_{NP} floor of a birdcage] taste
 * a [_{NP} floor of a kitchen] taste
 * a [_{NP} floor of a bathroom] taste

- c. [_{PP} over the fence] gossip
 * [_{PP} under the tree] gossip
 * [_{PP} in the bedroom] gossip

- d. [_{PP} in a row] nests
 * [_{PP} in a column] nests
 * [_{PP} in a line] nests

- e. [_{VP} ate to much] headache
 * [_{VP} drank to much] headache
 * [_{VP} studied to much] headache

결국 Lieber, Toman이 제시한 예들은 구나 문장이 관습적인 통용으로 인한 하나의 개념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경우로 그러한 예들은 특정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예들은 독일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동사구나 전치사구가 하나의 단어로 형성되는 경우와 유사하다.

- in bezug auf, im Zusammenhang mit, ohne Rücksicht auf, ...
- Antrag stellen, Folge leisten, Anordnung treffen, in Rechnung stellen, ...

따라서 Lieber의 문제점은 이미 하나의 개념으로 굳어진 특정한 구나 절을 통사규칙으로 유도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조어형성은 어휘범주에 속하는 표현들의 상호 결합으로 유도되는 어휘부에 한정된 현상으로 국한된다. 즉, 이 논문에서는 어휘론자들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론자들의 입장에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전통적인 조어론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소위 Bracketing Paradox이다.

2. Bracketing Paradox

전통적인 조어론에서 조어를 변형에 의한 생성으로 기술하려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영어의 a heavy smoker와 같은 예에서 heavy가 행위자 smoker 전체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의미가 아니고 [smoke + er] 구조에서 어근인 smoke의 의미를 한정하는 부사의 의미를 갖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예들은 이미 60년대에 논의되었던 조어 구조와 수식어들의 Bracketing Paradox를 제시한 것이다 (Strang 1968: 219).

- (7) a. He is a wretched farmer.
- b. He is a prosperous farmer.
- c. He is a poor far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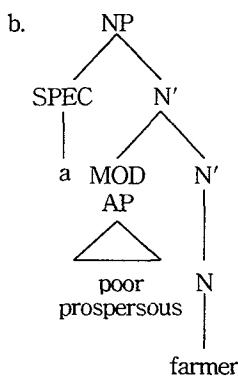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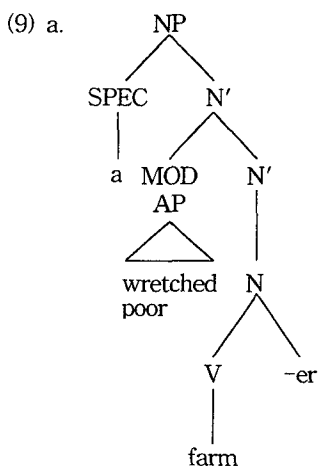
(1a)의 경우 부가어적 형용사 wretched는 farmer의 동사 farm의 의미를 한정하는, 즉 He farms wretchedly의 의미를 가지며 행위자 의미역을 나타내는 파생접미사인 er를 수식하지는 않는다. (1b)의 경우 부가어적 형용사 prosperous는 farmer의 동사 farm의 의미를 한정하지 않고 행위자인 er를 수식한다. 즉, 이문장은 He is a farmer who is prosperous로 풀어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1c)의 경우 poor는 He farms poorly, 혹은 He is a farmer who is poor로 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poor는 (1a, b) 두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조어 유도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형용사 wretched가 조어전체의 행위자 의미역을 대신하는 -er의 의미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조어구성소인 동사 farm의 의미를 한정하게 함으로써 조어의 내부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예들을 우리는 독일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hin 1974: 101ff):

- (8) a. ein lauter Gröler, ein übertriebener Gröler,
- a'. ein dicker Gröler, ein großer Gröler
- b. ein eifriger Sprachforscher, ein oberflächli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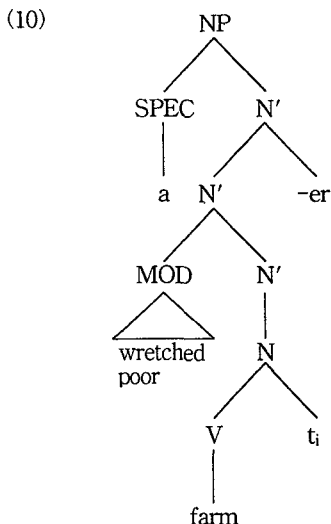
- Spracherforscher, ein guter Spracherforscher, ...
 b'. ein hungriger Spracherforscher, ein reicher Spracherforscher,
 c. ein ruhiger Schläfer, ein lauter Schläfer, ...
 c'. ein schlecht aussehender Schläfer, ein unbekannter Schläfer
 d. ein lebhafter Träumer, ...
 d'. ein schlanker Träumer
 e. ein starker Raucher, ...
 e'. ein dünner Raucher

(2d, e)를 예를 들면 부가어적 형용사 lebhaft는 Träumer의 동사 träumen의 의미를 한정하는, 즉 Jemand träumt lebhaft의 의미를 가지며 행위자 의미역을 갖는 er를 수식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부가어적 형용사 stark는 Raucher의 동사 rauch의 의미를 한정하는, 즉 Jemand raucht stark의 의미를 가지며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는 한 행위자 의미역을 갖는 er를 수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2d', e')에서 schlank와 dünn의 의미를 보면 부가어적 형용사 schlank가 Träumer의 동사 träumen의 의미를 한정하는, (즉 *Jemand träumt schlank)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없고 행위자 의미역을 갖는 er를 수식하는 경우만 있다. 마찬가지로 부가어적 형용사 dünn이 Raucher의 동사 rauchen의 의미를 한정하는, (즉 *Jemand raucht dünn)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없고 er를 수식하는 경우만 있다. 이러한 설명은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2a-d)에 모두 해당된다.

문제는 (7a-c)와 (8a-e)의 예들을 어떻게 X'-도식에 나타낼 수가 있는가에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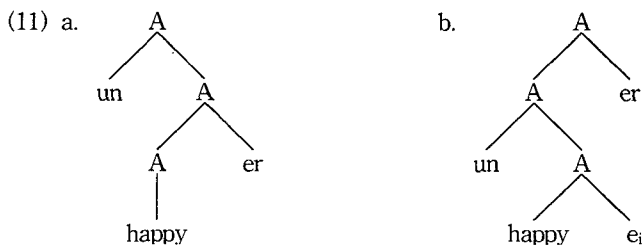


(9a)의 구조는 (7a)와 이중의미를 갖는 (7c)의, 그리고 (9b)는 (7b)와 이중의미를 갖는 (7c)의 형용사와 명사조어의 의미관계를 기술하는 것으로 가정해 보자. (9b)의 경우는 형용사가 조어 farmer의 전체의미를 수식하기 때문에 올바른 구조기술이지만, 그러나 (9a)의 경우는 wretched와 farm 사이에 행위자 의미역을 갖는 -er가 가로막고 있어 이들의 의미해석을 위한 함수-논항관계를 구조적으로 얻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Petsesky (1985)가 제안한, 변형문법이론내의 LF상에서 양화구가 상승하는 (Quantifier-Raising) 방식의 다음과 같은 -er접미사 상승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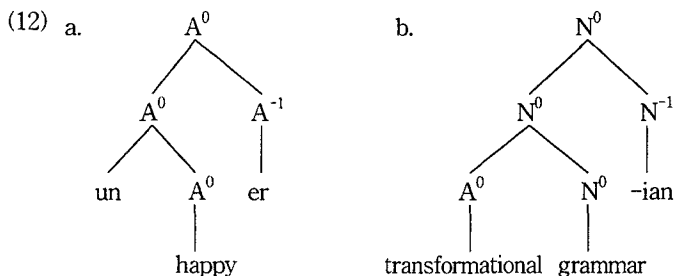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접사이동의 문제점은, 첫째로 -er가 어느 위치로 상승해야만 하는가와 이동 후 남게 되는 흔적을 어떻게 결속하게 되는가 하는 데에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어구조상에서 파생접미사가 핵심어(head)로 간주된 이상 일반적인 통사이동의 원칙을 따른다면 핵심어-핵심어 이동을 허용하거나 핵심어 연결을 허용하는 상위구조에 핵심어 범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은 최근래까지의 변형문법이론의 틀 안에서 그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er 자신이 핵심어이기 때문에 이것의 흔적은 동사 farm으로부터 지배될 수 없고 적정지배(proper governed)되기 위해 선행지배(antecedent-govern)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휘범주가 이동의 장벽이 되지 않는지 문제가 된다. 따라서 LF상에서 접사이동을 허용할 만한 다른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한 (7a-c)와 (8a-e)에 제시된 수식어와 핵심어의 의미관계를 구조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Law (1996)은 Bracketing Paradox에 대한 변형문법이론내에서 그 동안 자주 논의된 unhappier, transformational grammarian과 같은

예를 들어 그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그는 unhappier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음운론적인 접사결합의 구조와 May (1977)의 양화구상승과 같은 접사이동에 의해 유도되는 의미구조의 두 가지를 설정한 Pesetsky (1985)를 비판한다.



(11a)는 음운론적인 어간과 접사결합을 나타낸 것이지만 이 구조로부터는 (not ((more) happy))와 같은 의미합성구조를 얻기 때문에 unhappy의 올바른 의미 (more ((not) happy))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1b)는 올바른 의미구조를 얻기 위해 형태소 er가 LF-이동한 구조이다. Law (1990)은 이러한 LF-이동의 문제점으로, 먼저 접사이동의 입력이 되는 형태소들의 연쇄체는 이동으로 인한 결과로서의 형태소들의 연쇄체와 상이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연쇄체 공회전 제약 (String Vacuous Restriction (Pesetsky 1985:231))을 들고 있다. 즉, 이러한 제약은 일반적으로 이동의 입력과 출력의 동일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즉 이동의 공회전을 허용하지 않는 변형문법의 가설과 상치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어떤 언어에서도 0-층위 아래의 형태소가 이동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Perlmutter (1971)에 따라 어휘들의 자유순서를 허용하는 언어는 있어도 접사들의 자유순서를 허용하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11b)와 같은 접사이동의 부당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접사이동을 가정하지 않고 하나의 구조에서 접사와 어근의 음운론적인 결합 및 이들의 의미합성을 기술하기 위해 Law는 접사를 X^0 이하에 존재하는 X^{-1} 층위에 속하는 표현으로 가정하고 unhappy와 transformational grammarian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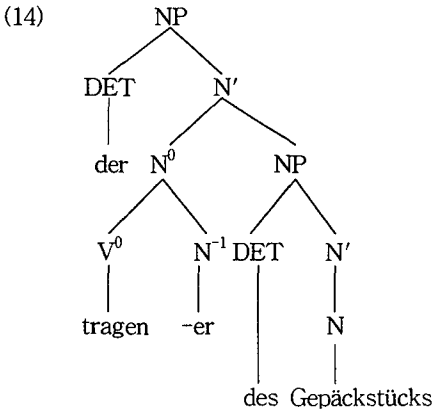


(11a)에서 접두사 un은 (A happy)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unhappy는 접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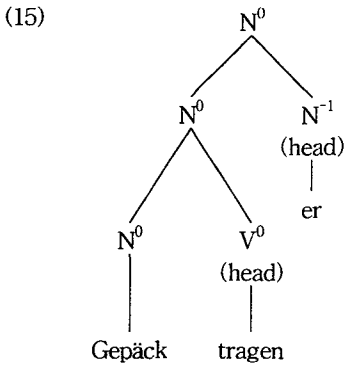
-er의 논항으로 되어 있다. 이때 -er은 자신이 취하는 논항의 핵심어인 happy의 의미에 대해서만 선택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연결위치에 있는 접두사 un-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의미관계를 갖게 되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접두사 un-은 다만 happy와 의미합성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Bracketing Paradox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동일한 방법으로 (11b)에서도 접미사 -ian은 자기가 논항으로 취하는 (_N transformational grammar) 중에서 핵심어인 grammar만을 의미선택 제약을 가하고 연결위치에 있는 transformational는 grammar와만이 의미합성이 이루어지게 되어 역시 Bracketing Paradox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a wretched farmer의 경우는 Law의 방법이 소용이 없다. 먼저 wrechedten는 명사구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통사범주 AP에 속하고, 즉 명사구 (_{NP} (_{N'} (_{AP} wretched))(_{N'} (_N farmer))))내에 존재하고 결코 합성규칙을 통해 어휘범주들의 결합으로 유도된 합성어, 즉 (_N (_A wretched) (_N farmer))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어어미 -er나 동사 farm이 N⁰를 넘어 최대투영범주인 AP의 내부에 존재하는 wretched를 의미적으로 선택제약을 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Law의 방법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기술할 수가 없다. 조어가 의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은 이 밖에도 단순히 어휘범주들간의 결합영역을 훨씬 넘어 구범주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은 독일어의 예들을 가지고 논의하여 보자.

- (13) a. Jemand trägt das Gepäckstück
- b. Träger des Gepäckstücks
- c. Gepäckträger

(13a)에 의미상으로 대응되는 조어로 복합명사구 Träger des Gepäckstücks과 합성명사 Gepäckträger를 볼 수 있다. 이들의 경우 Law의 방법은 Träger des Gepäckstücks의 경우에는 Bracketing Paradox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혀 소용이 없다. 다음 구조를 보자.



Law의 방법에 따르면 구조 (14)에서 접미사 *-er*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N^0 이하의 영역에 한정된다. 그러나 *er*와 *tragen*은 어휘범주 N^0 를 넘어 N' 아래의 전 영역에 걸쳐 의미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어휘부로부터 *-er*와 *tragen*의 개별적인 범주적 투영 (projection)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의미합성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최근 의미역의 상속 (inheritence) 문제가 논의되면서 *tragen*이 취하는 의미역 (Ag, Th)중에서 외재논항인 행위자 의미역이 접사 *-er*에 의해 채워지고 내재논항인 대상 의미역 Th은 조어유도과정에서 빈자리로 남아 있다가 통사구조상에서 [NP des Gepäckstücks]로 채워지는 방법이 구조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문제점은 접사 *-er*가 타동사 *tragen*의 의미를 논항으로 취하여 명사의 의미를 값으로 얻게 하는 함수로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도된 Träger의 의미는 다시금 [NP des Gepäckstücks]를 논항으로 취하여 N' 에 걸리게 되는 명사의 의미 [N' Träger des Gepäckstücks]의 의미를 얻게 된다. 즉, 구조적으로는 타동사 *tragen*의 의미역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함수-논항 관계에 의한 의미합성이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어 있다(Fanselow 1988, Moortgat 1984). 의미합성을 단지 의미역 구조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Law의 방법에 따라 다만 Gepäckträger와 같은 합성명사에 국한될 것이다.



Law의 합성어 분석에 따라 형태소들간의 Bracketing Paradox나 의미합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독일어에서 합성어의 경우 한정어 (Determinant) - 핵심어 (head = Determinat)의 어순으로 매개변항을 설정할 경우 적어도 변형문법내에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조어론을 단지 어휘부에 국한시킨 경우에 타당하며, 이는 조어현상을 통사적 조작을 통해 기술하려는 Lieber의 제안에 반례를 제시한 것이다.

조어현상과 통사현상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준수될 수 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다시금 Gepäckträger와 Träger des Gepäckstücks간의 의

미차이를 기능범주를 중심으로 논의하여 보자.

3. 조어론 상에서의 기능범주 역할

앞절에서 우리는 Gepäckträger를 Law의 방법에 따라 어휘부에서 기술함으로써 Bracketing Paradox와 의미합성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Träger des Gepäcks의 기술에 적용될 수 없음은 이 두 구조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Gepäckträger는 조어로서 그 유도과정이 어휘부에서 취급되어야 하며, Träger des Gepäcks는 조어 [_N Träger]를 핵으로 하고 [_{NP} des Gepäcks]를 보속어로 하는 명사구로서 통사론에서 그 유도과정이 기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조어론 연구에서 이 두 구조가 모두 동일한 의미역 구조를 갖고 있다는 데에서 이들의 구조적인 유사성까지도 찾아보려는 시도가 지배적이었다. 즉 [_v tragen]은 어휘부에서 (Ag, Th)의 의미역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Gepäck-träg-er의 경우 Gepäck가 Th 의미역을, 조어어미 -er가 Ag의 의미역을 부여받으며, Träg-er des Gepäcks의 경우에도 역시 -er가 Ag의 의미역을, des Gepäcks가 Th 의미역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들을 동일한 통사적 구조로부터 유도하려는 시도가 변형문법의 조어론 연구에서 끊이지 않고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조어가 조어구성 어휘들의 개념을 결합으로하는 어휘부의 속성이라면,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발화상황에 관련된, 즉 지시적(indexikalisch), 한정적(definitiv) 표현의 기능범주, 시제(Tempus), 양상(Modus)를 나타내는 기능범주들은 결코 조어 형성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자명한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Gepäckträger에서 Gepäck는 예를 들어 지시적이거나 한정적이거나, 또는 특정한 발화상황이 근거한 Tempus, Modus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Träger des Gepäckstücks에서의 des Gepäckstücks는 개념을 나타내는, 즉 어휘범주의 표현이 아니고 특정한 시간과 상황에 관련된 지시적, 혹은 한정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개념을 나타내는 Gepäck와 발화상황에 제약을 받는 des Gepäckstücks의 차이점은 다음 예문들에서 그 문법성의 차이를 보인다.

- (16) a. Der Gepäckträger trägt das Gepäck nicht.
 b. *Der Träger des Gepäckstücks trägt das Gepäckstück nicht.
 c. *Derjenige, der das Gepäckstücks trägt, trägt das Gepäckstück nicht.
- (17) a. Der Spracherforscher erforscht die Sprache nicht.
 b. *Der Erforscher der Sprache erforscht die Sprache nicht.
 c. *Derjenige, der die Sprache erforscht, erforscht die Sprache nicht.

- (18) a. Der Briefträger trägt heute keine Briefe (aus).
 b. *Der Träger des Briefes trägt den Brief nicht.
 c. *Derjenige, der den Brief trägt, trägt den Brief nicht.

a-예문과 b-예문의 문법성의 차이는 단순히 기저동사인 *tragen*, *erforschen*, *tragen*이 갖는 의미역 구조가 특정한 의미역으로 채워지는가, 아니면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16b), (18b)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파생조어와 이조어의, 특정한 발화상황에 의존적인 보족어와의 관계가 이 예문들을 풀어쓴 (16c), (18c)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동시에 긍정되기도 하고 부정된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발화상으로부터 독립된 (16a), (18a)의 조어들은 그 구성요소가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 예를 들어 *Gepäckträger*의 *Gepäck*는 *Träger des Gepäckstück*의 *des Gepäckstücks*과는 기능범주의 구조적 개입으로 인해 의미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 (16a), (18a)의 예문들은 문법적이다. 독일어나 영어의 경우 기능범주인 관사로 표현되는 지시어는 통사적인 유도과정에서 비로서 그 의미가 확정된다. 즉, *ein*, *jeder*, *der* 따위와 같은 관사는 의미상으로는 개체집합을 나타내는 일항술어로서의 보통명사와 결합하여 각각 그 집합의 임의의 개체, 각각의 개체 모두, 유일한 개체를 한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이들 관사들은 통사규칙에 의해 유도되고 명사의 의미를 한정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어휘부에서 조어규칙으로 유도된 합성명사 전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한정하지만, 그러나 합성명사의 개별구성소의 의미개념에 대해서는 구조상으로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한다. 다음 예들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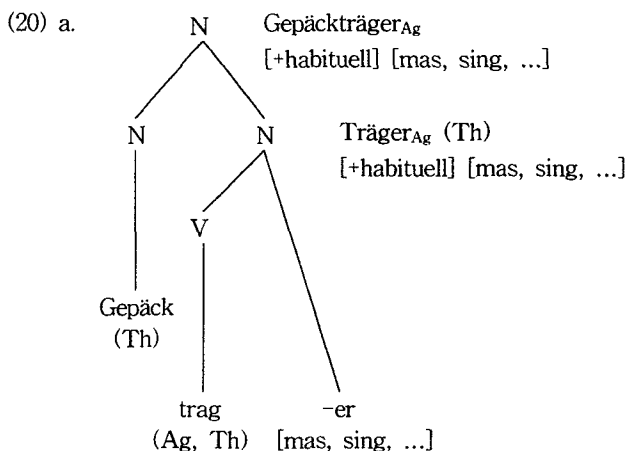
- (19) a. [_{NP} [_{DET} *das* [_N [_N *Geld*] [_N *beutel*]]]]
 b. [_{NP} [_{DET} *der* [_N [_N *Heu*] [_N *Wagen*]]]]
 c. [_{NP} [_{DET} *die* [_N [_N *Bier*] [_N *Flasche*]]]]

정관사 *der*, *die*, *das*가 합성명사구조 내에서 한정어인 *Geld*, *Heu*, *Bier*의 의미를 제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다만 개념상의 의미를 갖고 구체적인 지시 의미를 허용하지 않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우리는 지갑 (*Beutel*) 속에 돈 (*Geld*)이 들어있지 않아도 *Geldbeutel*이라는 조어의 의미를 알고, 마차 (*Wagen*)에 건초가 없어도 *Heuwagen*의 의미를 알며 병 (*Flasche*)에 맥주가 없어도 *Bierflasche*의 의미를 알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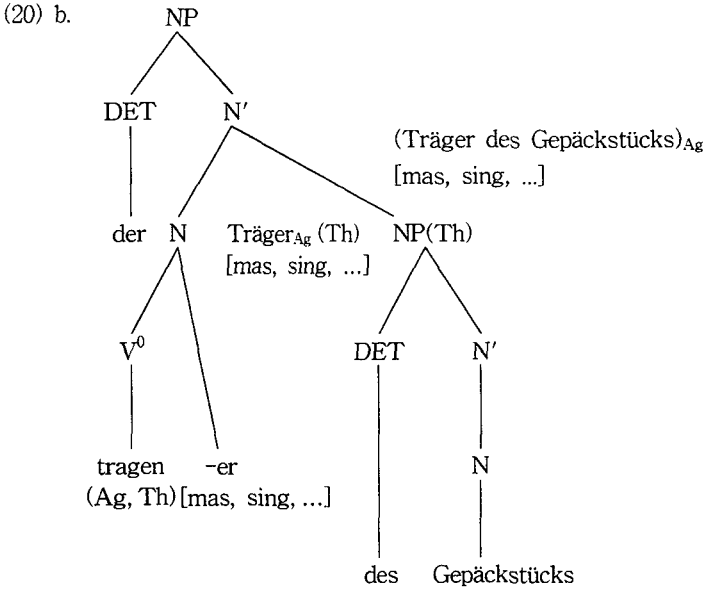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에서 *Gepäckträger*의 *Gepäck*는 관사류에 의해 표현되는 어떤 지

¹ Shin (1982: 726)에서는 *Geldbeutel*, *Heuwagen*, *Bierflasche* 등에서 *Geld*, *Heu*, *Bier* 등 한정어 (*determinant word*)가 총칭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어상에서의 한정어를 Carlson (1977)에 따라 종류의 개념으로 형식화하였다. 즉, 만일 a와 b가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라면 ab를 합성하는 합성어규칙은 a를 대상으로부터 종류를 나타내는 명사로 변형시킨다.

시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반면 Träger des Gepäckstücks에서 des Gepäckstücks는 먼저 기능어(des)가 갖는 지시기능, 즉 특수한(spezifisch), 한정적인(definitiv), 총칭적인(generisch), 혹은 일반적인(allgemein) 지시기능 중 문맥에 따라 특수한, 혹은 한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Gepäckstücks의 의미를 제한하고 이것은 다시금 Träger의 의미를 제한한다. 이러한 관사의 도입은 통사적인 현상으로서 어휘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Gepäckträger의 구조에서 관사가 들어갈 자리는 Gepäck에도, Träger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Gepäckträger와 Träger des Gepäckstücks의 Träger는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다는 데에 인식론적인 문제가 있다. 즉 Gepäckträger는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는 완전한 독립적인 명사(absolutes Substantiv)인 반면 Träger는 다른 명사구, 예를 들어 Gepäckstück, Bahre, Fahne, Waffe 등과 같은 다른 보족어와 함께 비로서 개념의 완전성을 보이는 관계적 명사(relationales Substantiv)로 분류된다(Löbner 1985, Lehmann 1990). Gepäckträger를 하나의 독립적인 개념을 갖는 완전 명사로, 그리고 Träger를 das Gepäckstück과 관계를 갖는 관계명사로 기술하는 방법은 기저동사 tragen을 중심으로 이 두 표현이 동일한 의미역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사적 구조를 갖는다는 주장과는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우리는 Aristoteles로부터 Kant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식론 연구에서 명사범주에 의해 표현되는 대상은 그것이 이념적인 대상이든 혹은 구체적인 실체의 대상이든 지속적인 시간성을 갖는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있다. 즉, 개별어휘의 의미변천은 다른 말소리의 변화나 통사규칙의 변화에 비해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진다.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어휘부에 수록된 어휘항목 Gepäck, trag-, -er 등이 결합하여 Gepäckträger라는 명사조어가 유도될 경우 이 명사는 이들 개별 어휘항목의 의미이외에도 언어사회에서 통용되는 특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어휘부에 수록되는 조어는 일반적으로 그들 구성원의 의미이외의 특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통사자질의 삼투(percolation)나 의미역의 상속(inheritance)을 가지고 조어구조를 기술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우리는 Gepäckträger(짐꾼)이 '직업적으로 짐을 나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적(berufsmäßig/beruflich)이라는 의미자질은 tragen의 어휘항목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즉, 조어어미 -er은 tragen, Gepäck와 결합함으로써 tragen의 의미자질에 [+habituell]을 첨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유도된 명사조어는 고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발화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이 명사조어 유도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er가 tragen의 의미역구조(Ag, Th)에서 Ag의 미역을 흡수한 것으로, 그리고 Träger는 Th의 의미역을 갖는 Gepäck와 결합함으로써 비로서 완전한 독립적인 명사조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파생접미사가 자신이 논항으로 취하는 기저동사의 의미역구조를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즉 일부 의미역을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흡수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조상에서 나타내 보자.



한편 Träger des Gepäckstücks의 경우 -er은 tragen을 논항으로 취해 Träger를 유도함으로써 tragen이 갖는 의미역구조 (Ag, Th)에서 Ag를 흡수하는 것은 Gepäckträger와 동일하지만, 그러나 tragen의 의미자질에 아무런 변화도 야기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불완전한 의미의 Träger가 관계명사처럼 의미역 Th을 갖는 보족어를 취하여 의미적으로 완전하게 되는데, 이때 보족어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명사구로서 통사구조상에 실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을 뒷받침하는 동기는 Träger가 의미상으로 불완전한 관계명사이기 때문에 이 관계명사의 완전한 의미해석을 위해서는 관계되는 표현이 어휘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휘부에 개념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관사나 전치사와 같은 기능범주에 의해 그 의미를 한정시킬 수 있는 명사구가 되는 경우이외에 다른 것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되는 표현이 명사구일 경우 우리는 Träger des Gepäckstücks를 얻게 되고 이는 다음 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미역을 통해 통사적으로 실현된다.



파생접미사에 의한 조어유도가 이처럼 기저동사의 의미역구조와 의미자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일반적이다.²

- (21) a. Maria erfindet etwas.
 Marias Erfindung
- b. Maria erfindet die Glühlampe
 Marias Erfindung der Glühlampe
 die Erfindung der Glühlampe durch Maria
- c. Hans beobachtet den Vogel.
 Hansens Beobachtung des Vogels
 die Beobachtung des Vogels durch Hans

-ung조어의 경우 (21a)는 기저동사 erfinden의 의미역구조 (Ag, Th)에서 Th 의미역이 -ung에 의해 흡수된 경우이고 또한 의미자질 [+perfektiv]가 [+resultativ]로 바뀐 예이다. (21b)는 -ung에 의해 흡수된 의미역은 없지만 erfinden의 의미자질이 [+perfektiv]에서 [imperfektiv-perfektiv]로 바뀐 것을 알

² -조어의 기저를 이루는 동사들 대부분은 er-, ver-, ent- 등과 같은 비분리전철 동사들로서 이들의 동작태 (Aktionsart)가 [+perfektiv]자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beobachten, belauschen 등과 같은 [+imperfektiv]의 동작태를 갖는 경우도 있고 ehren, verachten 따위와 같은 [+durativ]의 동작태를 갖는 동사들도 있다.

수 있다. 또한 (21c)에서는 beobachten의 의미자질이 역시 [+perfektiv]에서 [imperfektiv-perfektiv]로 바뀐 예이다.³ -e접미사나 -t접미사에 의한 조어유도는 현대독일어에서는 비활성적이고 의미역구조의 변경이나 의미자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접미사가 기저동사의 의미역 구조에 주어진 의미역들을 기저동사와 마찬가지로 동사적으로 특정한 환경에만 나타나도록 제약을 가한 것을 볼 수 있다.

- (22) a. Hans liebt die Nachbarn.
 Hansens Liebe *zu der Lehrerin*
 b. Hans kommt in Heidelberg an.
 Hansens Ankunft *in Heudelberg*
 c. Hans fährt nach Frankreich.
 Hansens Fahrt *nach Frankfurt*
 d. Hans kampf um die Stellung.
 Hansens Kampf *um die Stellung*
 e. Hans ruft nach Maria.
 Hansens Ruf *nach Maria*

상태동사 lieben이 Liebe로 명사화되는 경우 동작태 (Aktionsart)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ankommen이 동작태로 명사화될 때 이들의 동작태는 [+resultativ]로 역시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abfahren이 Abfahrt로 명사화 될 때에도 이들의 동작태가 [+perfektiv]로서 그대로 변화없이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rufen이 Ruf로, kämpfen이 Kampf로 명사화 될 때 이들의 동작태가 [+imperfektiv]로서 어떠한 변화를 겪지 않는다. 그러나 접미사 -t, -e에 의한 조어나 동사의 어간만을 가지고 조어를 유도하는 경우는 현대독일어에서 극히 비활성적이기 때문에 동작태의 변화를 겪지 않는 경우의 조어를 이들을 가지고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다음은 0-접미사에 의한 명사화로서 동사로부터 명사화 될 때 특정한 동작태의 변화가 생긴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 (23) a. Peter erkämpft die Position.
 Peters Erkämpfen der Position
 b. Peter erarbeitet die Studie.
 Peters Erarbeiten der Studie
 c. Peter rettet den Verletzten.
 Peters Retten des Verletzten

³ Ehrich (1977)에 따라 [perfektiv-imperfektiv]는 모순되는 두 개의 자질 [+perfektiv], [+imperfektiv]이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perfektiv]에서 [+imperfektiv] 자질로 전이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d. Peter tötet die Katze

Peters Töten der Katze

erkämpfen, erarbeiten, retten의 경우 Erkämpfen, Erarbeiten, Retten으로 각각 명사화되면 동작태는 [+perfektiv]에서 [imperfektiv-perfektiv]로 바뀐다. töten의 경우 Töten으로 명사화되면 동작태는 [+resultativ]에서 [imperfektiv-resultativ]로 바뀐다(Ehrlich 1977, 1991).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독일어에서 비활성적인, 어휘화된 조어들을 제외하면 조어과정이란 의미역의 변화나 의미자질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써 변형문법에서 취급하는 순수한 의미역 상속이나 혹은 의미자질의 상속과 같은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4. 조어구조와 통사구조의 의미역 관계

이 논문의 2절에서 우리는 조어상에 나타난 Bracketing Paradox를 논의하였고, 3절에서 조어구조가 어휘부내에서 개별어휘들의 개념결합을 나타낸 것이라면, 파생조어를 구성성분으로 하는 복합명사구의 구조는 기능범주의 개입으로 인해 통사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그 차이를 기술하였다. 이 절에서는 어휘부의 의미역구조로부터 조어와 복합명사구가 유도되는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Bracketing Paradox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휘부의 의미구조가 말소리의 표현구조에 대응되는 관계를 어휘사상이론(Lexical Mapping Theory)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조어를 포함한 복합명사구의 통사구조를 X'-도식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독일어 복합명사구의 다양한 통사적 분포를 -ung 조어를 예를 들어 논의하여 보자.

(24) a. Der Lehrer ermahnt den Schüler.

b. die Ermahnung des Lehrers

c. die Ermahnung des Schül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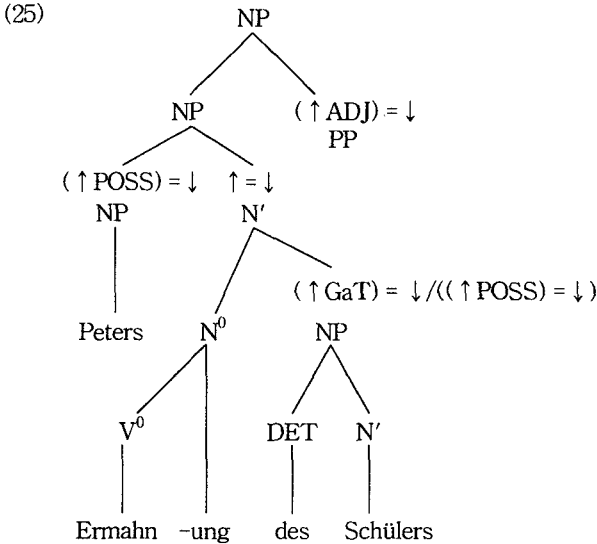
d. Peters Ermahnung des Schülers

e. die Ermahnung des Schülers durch den Lehrer

문장 (24a)가 명사화 되는 종류는 주어가 2격 부가어(Genitiv-Attribut = GaT)로 등장하는 경우 (24b), 목적어가 2격 부가어로 등장하는 경우 (24c), 주어가 문법적 소유기능(POSS(essiv))을 갖고 목적어가 2격 부가어로 등장하는 경우 (24d), 끝으로 목적어가 2격 부가어로, 그리고 주어가 문법적 상황기능(ADJ(unct))을 갖는 것과 같은 통사적 분포를 갖는다.⁴ 그밖에도 die Erfindung

⁴ 어휘사상이론에서는 아직까지 부가어에 대한 문법기능범주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Peters, Americas Entdeckung 등의 예들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문법적 기능 POSS는 조어의 앞이나 뒤에 오는 것을 허용하여 다음과 같이 X'-도식상에 문법기능들을 부과할 수 있다.



이상의 구조에서 원칙적으로 2격 부가어 자리에 주어가 오거나 목적어가 오는 것은 통사상의 제약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die Ermahnung des Lehrers, die Ermahnung des Schülers*). 또한 NP의 지정어(SPEC) 자리에 주어가 오거나 목적어가 오는 것도 독일어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Peters Erfindung der Glühlampe, Americas Entdeckung durch Columbus, ...*). 따라서 X'-도식에 부과되는 문법기능 POSS, GaT 및 ADJ는 어휘부에 존재하는 개별어휘의 의미역구조가 통사구조에 사상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조어는 만일 그 자체가 완전한 개념구조를 지니게 되면 통사구조에 어휘범주로 도입된다. 그러나 불완전 명사(Langacker (1970), Löbner (1985), Lehmann (1990))의 상태로 통사구조에 도입되면 문법기능어의 도움을 받아 그 지시체를 확보할 수 있는 구단위의 표현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 구단위가 문법기능 POSS, GaT, ADJ가 부착된 통사범주에 나타나게 된다. 조어의 의미역이 이상의 통사적인 문법기능에 사상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예문 (24a)에서 동사의 의미역이 통사구조의 문법기능에 사상되는 과정을 어휘사상이론으로 기술하여 보자.

그러나 NP의 통사구조에 문법기능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GaT와 같은 문법기능어를 부과하는 것은 영어와 독일어의 경우 필수적인 요청으로 간주된다.

(25) <i>ermahnen</i> 의 의미역구조:	<i>ermahnen</i>	<Ag, Th>
	IC:	-o -r
	Default:	-r (+r = 0)
		SUBJ SUBJ/OBJ
		SUBJ OBJ

먼저 *ermahnen*은 자기가 취하는 의미역 Ag, Th에 고유자질 분류에 따라 -o, -r자질을 부여한다. 즉, 의미역의 위계구조상 상위에 있는 Ag가 문법 기능 OBJ에 사상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o (non-objective) 자질을 부여하였고 또한 하위에 있는 의미역 Th은 능동-수동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UBJ/OBJ에 사상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제약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r (unrestricted)자질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역의 자질분류를 고유자질 분류 (IC = Inherent Classification)라고 한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의미역이 나왔을 때 최상위에 있는 의미역을 동사에 의존하지 않는 비제약적인 것으로 만들어 언어 보편적인 SUBJ기능에 사상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Ag를 취하지 않는 술어 동사로부터도 주어에 있는 문장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상위의 의미역에 -r자질을, 그리고 기타의 의미역들에 +r자질을 부여하는 자질분류를 자동자질 분류 (Default Classification)이라고 한다. 자동자질 분류는 고유자질 분류에 비해 그 적용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만일 고유자질 분류에서 부여받는 자질이 고유자질 분류에서 부여받은 자질과 충돌을 일으킬 경우, 후자의 자질이 효력을 잃게 된다. 결과적으로 Ag는 [-o, -r] 자질 묶음에 따라 SUBJ로 사상되고 Th은 -r 자질을 갖게 되어 SUBJ 혹은 OBJ 문법기능으로 사상될 수 있지만 모든 언어에서 문장은 단 하나만의 주어를 가져야만 한다는 문장의 정형 (Wff = Wellformed Formular) 조건에 따라 OBJ로 사상된다. 이러한 의미역들의 통사적 문법기능으로의 사상은 그대로 조어를 포함한 복합 명사구에 나타나는 문법기능들에도 적용된다. 3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사로부터의 명사파생조어란 기저동사의 의미역구조와 의미자질에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즉, 이때 조어어미는 기저동사의 어떤 의미역을 흡수하거나, 생략하거나, 첨가하거나 아니면 의미자질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24c)의 유도과정을 보자.

(25) <i>ermahnen</i> 의 의미역구조:	<i>ermahnen</i>	<Ag, Th>
	[+ imperfektiv]	-o -r
-ung 조어:	<i>Ermahn-ung</i>	<i>ev</i> <Ag, Th>
	[imperfekt-	
	perfektiv]	

IC:	-o	+o
Default:	+r	-r
Wf. Ermahnung <POSS GaT>		

ermahnen이 취하는 의미역 Ag, Th은 일반적인 논항분류에 따라 각각 외재논항 및 외재논항으로 구분된다. 이제 -ung-조어가 유도되면 기저동사는 의미자질이 [+imperfekt]에서 [imperfekt-perfektiv]로 바뀌게 되어 하나의 사건명사(Ereignisnomen)가 된다. 또한 이 조어는 자기가 취하는 논항들이 아직 채워지지 못한 까닭에 불완전 명사로 간주되고 완전한 지시의미(Referenz)를 갖기 위해 통사상에서 구범주로 실현되는 보족어를 필요로 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 조어가 논항으로 취하는 의미역들이 독일어의 명사구 구조와 어순을 고려하여 의미역의 위계구조상 Ag가 상위에 그리고 Th이 하위에 있음으로, 하위에 있는 Th이 통사구조상에서 동사와 인접하는 문법기능어에, 그리고 상위에 있는 Ag가 동사의 지정어 위치에 있는 문법기능 POSS에 사상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IC와 Default의 자질부여가 이러한 과정에 부합하기 위한 타당한 동기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다음의 의미역과 문법기능어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26) a. Peters Ermahnung des Schülers

POSS	GaT
-o	+o
+r	-r
<Ag	Th>

b. Ermahnung des Schülers (durch Peter)

POSS	GaT	ADJ
—	+o	
	-r	
<---	Th>	

c. Ermahnung des Lehrers (gegen den Schüler)

POSS	GaT	ADJ
—	-o	
	-r	
<---	Ag>	

문장유도에서 IC 및 Default값으로 동사의 의미역에 부과하는 제한적 (+r) 혹은 비제한적 (-r) 자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미역이 통사적인 문법기능에 사상되는 관계가 제한적인가 아닌 가를 뜻한다. 의미역 Th은 능동문에서는 OBJ로, 그리고 수동문에서는 SUBJ로 사상되기 때문에 비제한적이다. 즉 SUBJ

위치에는 어떤 의미역도 사상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이 문법기능에 어떤 의미역도 사상되지 않는 문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복합명사구 구조에서 POSS위치에 의미역을 사상하는 데에는 다양한 의미적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 Peters Erfindung에 비해 *Glühlampes Erfindung은 비문법적이며 Peters Beobachtung des Sterns에 비해 *Sterns Beobachtung은 비문법적이다. 이 위치는 특수한 경우(Amerikas Entdeckung)을 제외하면 고유명사만이 사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 위치는 SUBJ와는 달리 비인칭 주어나 허사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특정한 의미역이 사상되는 것이 특징이다.⁵

(26a)는 POSS와 GaT가 모두 나타난 경우이고 이때 POSS는 Ag가, GaT는 Th이 사상된 예이다. (26b)는 POSS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고 Th이 GaT에 사상되고, (26c)는 역시 POSS가 나타나지 않고 GaT에 Ag가 사상된 예이다. 여기서 우리는 -ung-조어가 의미역을 그대로 보존하는 경우 상위의미역은 POSS에, 그리고 하위의미역은 GaT에 사상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의미역을 생략하는 경우 남아 있는 의미역은 GaT에 사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생략된 의미역은 복합명사구의 ADJ위치에서 전치사구에 의해 실현된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POSS는 두 개의 의미역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다만 상위의미역만이 사상되는 경우로 고유명사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 의미역은 제한적인 자질 [-o]을 IC분류를 통해 부여받고, 하위의미역이 IC분류에 의해 [+o]자질을 부여받는다. 다음으로 Default값을 정할 때 고유명사에 사상되는 의미역이 [+r]자질을, 그리고 일반명사구에 사상되는 의미역이 [-r]자질을 부여받게 함으로써 문법기능 POSS에 사상되는 상위의미역이 고유명사가 되도록 하는 제약을 가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만일 의미역들 중 어느 하나가 생략되면 상위의미역과 하위의미역중 생략되지 않는 의미역이 GaT에 사상된다. 만일 상위의미역이 생략되었으면 하위의미역이 [+o]자질을 IC분류로 부여받을 것이며 하위논항이 생략되었으면 상위논항이 [-o]자질을 부여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의미역의 생략여부에 관계없이 IC의 자질부여는 변동이 없다. 이러한 설명을 근거로 다음은 (26b-c)의 의미역 사상을 시도해 보자.

(26) b'. Ermahn-ung	← --,	Th>
IC:		+o
Default		-r

Wf.	Ermahn-ung	← --	GaT >
			des Schülers (ADJ)

⁵ 2격부가어가 명사앞에 나타난 소위 sächsisches Genitiv 예들 des Königs Gefolge, der Winters Macht 등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독일어에서는 관사없이 고유명사만이 명사앞에 나타날 뿐이다(Eisenberg 1994: 250).

(26) c'. Ermahn-ung <Ag, --->
 IC: -o
 Default -r

Wf. Ermahn-ung < GaT --->
 des Lehrers (ADJ)

(26b'-c')에서 생략된 의미역들은 ADJ에 의해 표현될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동문의 경우 행위자구가 ADJ에 의해 나타나는 바와 흡사하다. 즉, -ung-조어과정에서 생략된 의미역들은 발화상황에서 보충될 수 있는 문법기능에 사상될 가능성을 갖는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전통문법에서 문제가 된, 동일한 구조를 갖는 Genitivus subjectivus와 Genitivus objektivus의 차이를 의미역이 통사구조상에 사상되는 과정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의미역이 조어어미에 의해 흡수되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는 기저 동사의 의미역구조에서 -ung-는 목적어를, 그리고 -er-조어는 주어를 흡수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미역의 흡수는 앞서 언급한 의미역의 생략과는 다르다. 즉, 의미역이 흡수되면 우리는 조어구조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흡수된 의미역이 복합명사구내에 부과될 수 있는 ADJ기능에 사상될 수 없게 된다. 먼저 의미역이 흡수되는 -ung-조어의 유도과정을 보자.

- (27) a. Peters Erfindung
- b. Träger des Gepäckstücks
- c. Das Wasser ist trinkbar.

(27a)는 다음과 같은 의미역 구조로부터 복합명사구의 문법기능으로 사상된다.

(27) a'. erfinden <Ag, Th>
 [+perfektiv]

-ung 조어: Erfind-ung_{Th} <Ag, (Th)>
 [+resultativ]
 IC: -o (+o)
 Default: +r (-r)

Wf. Erfind-ung_{Th} < POSS --->
Peters

의미역이 흡수되는 경우는 생략되는 경우와는 달리 의미역에 부과되는 자질을 그대로 보존하게 되고, 따라서 조어어미 -ung이 이 흡수된 의미역의 자질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ung은 erfinden의 의미역 Th이 통사적으로 사상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Peters Erfindung이 'etwas, was Peter erfindet'의 의미를 알게 된다.

다음으로 (27b)의 유도과정을 기술하여 보자. -ung-조어와는 달리 -er-조어는 기저동사의 의미역 구조에서 Ag의 의미역이 흡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보자.

(27) b'.	tragen <Ag, Th>		
-er 조어:	Träg-er	Ag	<(Ag), Th >
	IC:		(-o) +o
	Default:		(+r) -r
Wf.	Träg-er	Ag	← - - GaT >
			des Gepäcks

Träger des Gepäckstücks에서 -er은 tragen의 의미역 Ag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Ag가 통사적으로 사상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소유하여야 하며 이는 IC와 Default값에 의해 부과된 [+r]자질이다. 즉, 복합명사구 내에서 제약적인 통사적 위치는 POSS위치인데 이것은 바로 Ag가 주어로 나타나는 위치이다. 또한 Träger가 논항으로 취하는 의미역 Th은 통사적으로 목적어이고 의미역 대응이 비제한적인 2격부가어인 문법기능 GaT에 사상됨으로써 독일어의 올바른 통사의미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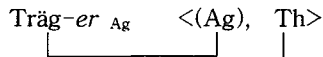
5. Bracketing Paradox 문제의 해결

4절에서 우리는 조어형성과정을 조어접사가 어간의 의미역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의미자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조어접사는 의미역을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흡수한다. 의미역을 첨가하거나 흡수하는 경우는 가시적인 형태소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에 따른 Bracketing Paradox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Bracketing Paradox의 문제는 조어의 의미구조와 표현구조가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로 결코 단일한 표층구조에서의 조어구성소들의 결합관계로 해결되지 않는다. 1절에서 논의한 Gepäckträger의 경우를 보자. -er는 자신이 결합하는 품사의 모든 형태소적 의미적 특성을 선택한다. 형태소적으로는 동사 혹은 드물게는 명사나 형용사와 결합한다. 결합하는 품사가 동사일 경우 동사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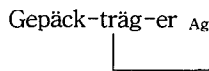
미역구조에서 Ag의미역을 흡수하여 형태적으로는 자신이 핵심어(head)인 -er-조어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er은 형태소적으로는 동사 tragen과 결합하여 Träger를 유도하고 의미적으로는 tragen의 의미역구조 <Ag, Th>에서 Ag를 흡수한다. 그러나 Träger는 불완전 명사로서 의미상 독립적인 지시체(Referenz)를 갖지 못한다. 즉 흡수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의미역 Th이 특정한 표현에 할당되고 이 표현과 의미적 관계를 가질 때에야 비로서 완전한 독립적인 지시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 표현은 개념을 나타내는 단순한 어휘일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통사적으로 유도된 지시적, 한정적 혹은 총칭적 의미를 갖도록 하는 기능범주를 포함하는 명사구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가 Gepäckträger, 후자의 경우가 Träger des Gepäckstücks인데 이들 사이에는 단지 기저동사의 의미역구조에 의한 의미의 유사성만 있을 뿐 Lieber (1992)가 주장하는 통사적 유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설명을 근거로 2절에서 논의한 통사구조상에서 발생하는 Bracketing Paradox문제는 다음과 같이 의미역구조로부터 조어나 복합명사구로 사상할 경우 해결될 수가 있다.

(28) a. tragen <Ag, Th>

-er 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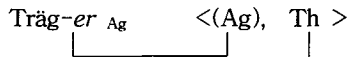


N-N 합성조어:
(조어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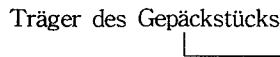


b. tragen <Ag, Th>

-er 조어:



복합명사구 유도
(통사규칙)



(28b)에서 의미역 Th이 독일어 명사구의 통사구조에서 생성된 2격부가어 GaT에 사상되도록 하는 일련의 IC와 Default자질분류에 따른 조작은 이미 4절에서 상세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미역구조를 통사구조에 사상하는 방법은 통사구조상에서 기저동사 tragen이 조어어미 -er를 넘어 des Gepäckstücks를 의미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생기는 Bracketing Paradox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통사구조상에서 des Gepäcks를 하위범주화하는 것은 tragen이 아니라 Träger이기 때문에 결코 tragen이 조어어미 -er를 넘어 des Gepäcks를 구조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없게 된다. 다음으로 독일어 통사론에서 난해한 문제로 남아있는 *Einführung in die Linguistik*에 관한 Bracketing Paradox를 해결하여 보자. 이 복합명사구는 다음과 같은 조어형성과정으로 기술된다.

(29) a. einführen	<Ag, Th, Loc>	
	[+perfektiv]	
-ung 조어:	Einführ- <i>ung</i> _{ev} < 0, 0, Loc>	
	[imperfekt- perfektiv]	
	IC:	(-o)
	Default:	(-r)
Wf.	Einführ- <i>ung</i>	< 0, 0, OBL>
		in die Linguistik

우리는 einführen으로부터 -ung-조어에 의해 Einführung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때 의미역 Ag와 Th이 생략되고 의미자질은 [+perfektiv]에서 [imperfekt-perfektiv]로 바뀌게 되어 하나의 사건명사(Ereignisnomen)가 된다. 의미역 Loc은 IC, Default값의 부여로 명사구구조내의 문법기능 OBL으로 사상되는데 이는 동사인 einführen이 아니라 명사인 Einführung이 OBL을 통사적으로 하위범주화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2절에서의 논의에 따라 통사구조상에서 einführen이 조어어미 -ung을 넘어 in die Linguistik을 의미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생기는 Bracketing Paradox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2절에서 starker Raucher의 Bracketing Paradox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rauchen의 의미역 구조와 Raucher의 어휘사상을 보자.

(30) a. rauchen	< Ag >	
	[-habituell]	
-er 조어	Rauch- <i>er</i> _{Ag}	<-->
	[+habitu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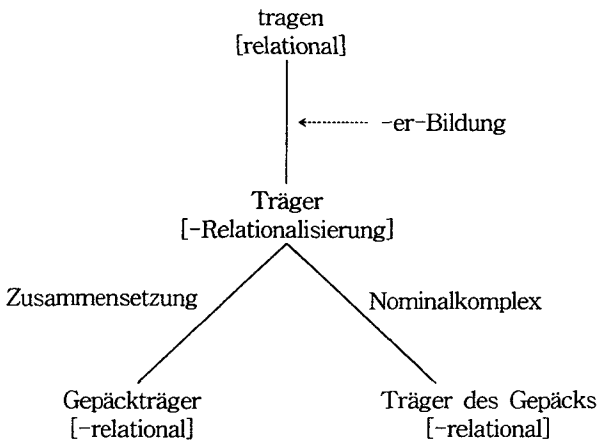
rauchen으로부터 -er조어를 유도하면 동작태에 변화가 생긴다. 즉 (30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habituell]에서 [+habituell]로의 변화는 Raucher를 수식하는 형용사에 선택제약을 가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저동사의 의미자질 변화는 명사 Raucher의 의미를 독립적(absolut)인 사용으로부터 다른 수식어와의 관계적인 사용으로 변화시킨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자.

(30) b.	starker	Rauch- <i>er</i> _{Ag}	<-->
		[+habituell]	
	relational		

만일 Raucher를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조어로 가정할 경우 우리는 gewissenhaft, ehrlich, angenehm 등과 같은 사람을 수식하는 형용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용사는 Raucher의 관계적인 의미로서 사용될 경우 *derjenige, der gewissenhaft raucht, *derjenige, der angenehm raucht, *derjenige, der ehrlich raucht 등과 같이 비문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명사조어의 유도에서 조어어미가 기저 어간의 의미역구조를 변경하거나 동작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규칙성은 일반적으로 동사로부터의 명사화는 동사가 갖는 관계적인 속성을 독립적인 명사의 의미속성으로 바꿔게 하고, 역으로 명사로부터의 동사화는 명사의 독립적인 의미로부터 동사의 관계적인 속성을 갖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사로부터 조어어미 -er, -ung 등에 의해 명사를 유도하는 조어형성과정은 동사의 의미가 완전히 채워진 상태로서의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최종단계의 조어로부터 의미역이 부분적으로 채워짐으로써 불완전 명사가 되는 과정으로 설명되는 데, 이때 불완전 명사는 내적으로 요구되는 의미역들이 개념적으로 다시 채워지는, 즉 합성조어의 입력이 되거나 아니면 이 의미역들이 통사적으로 문법적인 기능어에 사상되어 자신의 하위범주화의 논항이 되기도 한다. 이 관계를 다음 도표를 가지고 서술하여 보자.

(31)



이상으로써 우리는 조어형성과정을 동사의 명사화과정을 가지고 고찰하여 보았다. 조어의 의미는 조어형성이 동사화인가 혹은 명사화인가에 따라 기저어간의 의미를 관계적인 것으로, 혹은 독립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고정된 어휘의 의미를 언어사용에 따라 확장하거나 축소하게 하는 인간의 인지능력으로 설명된다. 또한 우리가 본 Bracketing Paradox란 조어의 불완

전한 의미가 독립적인 의미로 바뀌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결과라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신수송 (1983) '몬테규 문법이론에 의한 현대독일어의 명사화 문제 연구,' 언어 제 8권 제 2호, 한국 언어학회.
- _____ (1984) '독일어 조어구조의 Aktion, Aktivität 및 Ereignis 양태연구,' 언어 제 9권 제 2호, 한국 언어학회.
- Bartsch, R. (1981) 'Semantics and Syntax of Nominalizations,' Groenendijk, Th. et al. (eds.) *Formal Methods in the Study of Language*, Amsterdam: Mathematical Center Tracts 135.
- Botha, R. (1980) 'Word-Based Morphology and Synthetic Compounding,' *Stellenbosch Papers in Linguistics* No. 5, University of Stellenbosch.
- Chomsky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 Jacobs/P.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Waltham, MA: Ginn.
- Church, A. (1940) 'A Formulation of the Logic of Sense and Denotation,' *Journal of Symbolic Logic* 5.
- Davidson, D. (1967)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N. Rescher, ed., *The Logic of Description and Ac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_____ (1980) *Essays on Action and Events*, Oxford, Clarendon Press.
- DiSciullo, A.-M. and E. Williams (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Cambridge, MIT Press.
- Dowty, D.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D. Reidel.
- _____ (1991) 'Thematic Proto 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3.
- Ehrich, V.-E. (1977) *Zur Syntax und Semantik von Substantivierung im Deutschen*, Scriptor Verlag. Kronberg.
- Eisenberg, P. (1994) *Grundriss der Deutschen Grammatik*, J.B. Metzler, Stuttgart.
- Fabb, N. (1984) *Syntactic Affixation*, Ph.D. diss, MIT, Cambridge.
- Fanselow, G. (1988) 'Word Formation and the Human Conceptual System,' *Linguistische Studien*, Reihe A, Arbeitsberichte 179.
- Fleischer, W. (1969) *Wortbildung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Leipzig:

VEB Verlag Enzyklopädie.

- Halvorsen, P.K. (1983) 'Semantics for Lexical Function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14.
- Hoeksema, J. (1985) *Categorial Morphology*, Garland Publ. Inc., New York.
- _____ (1988) 'Head-Types in Morpho-Syntax,' *Yearbook of Morphology* 1:119-125.
- Kiparsky, P. (1982) 'From Cyclic Phonology to Lexical Phonology,' In H. van der Hulst/N. 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Foris, Dordrecht.
- Klein, W. (1994) *Time in Language*, Routledge, London & New York.
- Lehmann, C. (1991) 'Grammaticalization and Related Changes in Contemporary German,' In E. C. Traugott/B.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II, Amsterdam/Philadelphia.
- Lieber, R. (1992) *Deconstructing Morph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 _____ (1980)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Ph.D. Diss, MIT Cambridge.
- _____ (1988) 'Phrasal Compounds in English and the Morphology-Syntax Interface,' *CLS24-II*,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 Löbner, S. (1985) 'Definites,' *Journal of Semantics* 4.
- Paul, H. (1920) *Deutsche Grammatik*, Verlag von Max Niemeyer, Halle a.S.
- Perlmutter, D. (1971) *Deep and Surface Structure Constraint in Syntax*,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Pesetsky, D. (1979) 'Morphology and Logical Form,' *Linguistic Inquiry* 16: 193-248.
- Reichenbach, H. (1947) *Symbolic Logic*, The Free Press, New York.
- Reis, M. (1988) 'Word Structure and Argument Inheritance,' *Linguistische Studien*, Reihe A, Arbeitsberichte 179.
- Rosen, S.T. (1989) *Argument Structure and Complex Predicates*, Ph.D. Diss, Brandeis University.
- Ryu, Byong-Rae and S. Lobner (1996) 'Verbs and Times in Korean,' ms., Universität Düsseldorf.
- Ryu, Su-Rin (1995) *Ereignis-Repräsentation durch Tempus und Aspekt im heutigen Deutsch*, Magisterarbeit, Seoul National University.
- _____ and S. S. Shin (1995) 'Thematic Structure and Argument Structure: An Application of Lexical Mapping Theory for Korean,' *Language Research* Vol. 31-3.,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Savini, M. (1983) 'Phrasal Compounds in Afrikaans,' M.A. thesis, University of Stellenbosch.
- Selkirk, E. (1982) *The Syntax of Words*, MIT Press, Cambridge.
- Shin, S. S. (1974) *Transformationelle Untersuchungen zur Wortbildung auf -er im heutigen Deutsch*, Phil. Diss, Universität Heidelberg.
- _____ (1981) 'Some Remarks on the Formations of German Noun-Noun Compounds,'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721-730*. Seoul.
- _____ and M. H. Lee (1985) 'The Logical Form: A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German,' *Language Research* Vol. 21-4,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Sproat, R. (1985) *On Deriving the Lexicon*, Ph.D. Diss, MIT, Cambridge
- Storch, G. (1978) *Semantische Untersuchungen zu den Inchoativen Verben im Deutschen*, Vieweg, Braunschweig.
- Strang, B.M.H. (1968) 'Swift's Agent Noun Formations in -ER,' *Festschrift Hans Marchand*, Den Haag.
- Thoman, J. (1983) *Wortsyntax*, Max Niemeyer, Tübingen
- Thomason, R.H. eds. (1970) *Formal Philosophy: Selected Papers of Richard Montagu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Vendler, Z. (1967) 'Facts and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2-146.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68) *Adjectives and Nominalizations*, The Hague/Paris. Mouton.
- Vennemann, T. (1982) 'Remarks on Grammatical Relations,'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s.)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 Williams, E. (1981) 'Argument Structure and Morphology,' *Linguistic Review* 1.

ABSTRACT

Semantic Approaches to German Word Formations

Soo Song Shin

This paper pertains to the treatment of meaning descriptions of German word formations which are derived by the affixation from the various base verbs. At the same time the controversial problems of bracketing paradoxes are reconsidered, and some solutions are suggested for the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exical Functional Grammar. Word formation rules of either compound formations or derivations by affixation are performed in the lexical conceptual structures in lexicon. In the word formation structure there do not exist any indexical functions of the constituents related to some special time, place, modality or even anaphoric properties. Thus it is claimed in this paper that they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syntactic rules which are constrained by those indexical functions based on the special speech situations. This assumption is against that of the so-called transformationalists who treat word formation phenomena as syntactic ones.

The affixes in German such as *be-*, *er-*, *ver-*, *ent-*, *zer-* or *-er*, *-ung*, *-ling*, *-tum* or *-bar*, *-lich*, etc. are attached to the lexical items by word formational rules. However, they take those lexical items as arguments, and changes their thematic structures by addition, deletion or absorption processes. Furthermore the head-complement relations in word formations which can not be captured transformationally are handled appropriately on the thematic structures of the base words.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151-742